



애월포레스트 “발생 오수 전부 재활용”

도, 중간 대규모 개발사업 하수처리 규정 대폭 강화
오수 전량 수질기준 맞춘 중수도 처리 조건으로 심의
사업자 ‘오수 74% 개인하수처리 정화’ 당초 계획 수정

중간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을 주진하는 애월포레스트 사업자 측이 발생 오수를 전부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수 처리 계획을 선회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8월 해발고도 300m 이상 중간지역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하수 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기준 계획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지난 9일 공개한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따르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는 5일 애월포레스트 사업 계획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 전량을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생활용수 또는 생태 연못 유지 용수 등으로 전부 재이용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마쳤다.

평가협의회는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준비서(이하 준비서)를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과 환경보전 목표, 대안 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 방법, 주민 의견 수렴계획 등을 결정한다. 또 준비서란 사업자 측 입장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사해야 할 항목과 범위를 구상한 문서를 뜻한다.

애월포레스트 측은 준비서에서 발생 오수를 전부 중수도 수질 기준에 맞춰 처리한 뒤 재활용하는 ‘대안’과 오수 전량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한 뒤 하수로 흘려보내는 ‘대안’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으며 평가협의회는 ‘대안’을 채택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 탐라영재관 운영 주체 바뀔 듯 현재 제주개발공사가 제주도 위탁받아 운영 도, 새 운영자 입찰공고 계획… 단체·개인 가능

제주 청년의 도와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운영 주체에 변동이 예상된다.

11일 탐라영재관 운영에 관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는 2월 이후 새로운 운영자를 찾기 위해 입찰 공고를 낼 방침이다. 탐라영재관은 현재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로부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영재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주도는 운영 경비에 대한 부담으로 이같은 검토를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탐라영재관이 공의 목적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어 적자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탐라영재관은 건물 임대시설에 의한 임대료와 제주도의 보조금, 입주학생의 기숙사 사용료 및 입사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탐라영재관을 매각하고,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halla.com

오수를 중수도로 처리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한 것보다 수질이 2배 이상 우수하고, 대다수 재이용할 수 있어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지만 공사비와 유지비용이 증가한다.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해 지하로 흘려보내면 공사비와 운영비를 줄일 수 있지만 지하수 오염 우려는 그만큼 커진다.

당초 사업자 측은 지난 2024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일일 발생 오수 7986t(환경부 고시 산정 기준) 중 26%인 2060t만 중수도로 처리하고 나머지 74%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정화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방식은 법적 기준치인 총질소 20mg/l 이하 규정만 지키면 돼 수십년간 방류가 지속될 경우 지하수 내질소 축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제주도가 지난해 8월 중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에 대해선 발생 하수를 전부 중수도로 처리하도록 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하면서 애월포레스트는 오수 처리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애월포레스트 사업 예정지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속해있다.

도 관계자는 ‘발생 오수를 전부 중수도로 처리하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준비서 심의 단계에서는 사업비 변경 계획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사업자 측이 최종 인허가를 밟는 단계에서 사업비 변경 여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준비서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애월포레스트 측은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한다. 이 사업은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중간 해발고도 300~430m 지역 125만 1000㎡ 부지에 숙박·휴양 등 관광단지를 짓는 것이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관광객의 흐기심 10일 제주시 한경면 자구내포구에서 관광객이 오징어 말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회 정개특위 김한규·정춘생 의원 참여

6·3지방선거 관련 선거구 획정안 등 논의·결정
교육의원 5명 없어지는 제주도의원 정수 관심 ↑

국회가 6·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주 출신 국회의원이 2명 포함되면서 도의원 정수 확대를 추진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은 도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주 지역 상황이나 도민 여론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수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 후 선거구 획정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회 정개특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17개 시도 중 아직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이제야 1·2차 회의를 진행하는 지역이 많다. 제주도는 비교적 논의를 빨리 시작했다”며 “교육의원이 일몰되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확정된 이후에야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halla.com

‘탐나는전’ 발행 누적액 5년 만 2조3000억 발행액 97% 2조2478억 사용… 도, 올해 5000억 목표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발행을 시작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누적 발행액이 5년 여만에 2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57억원을 첫 발행한 후 이후 지난해 12월 말 기준 누적 발행액은 2조3069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648억원, 2022년 4446억원, 2023년 3870억원, 2024년 2747억원이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301억원이 발행됐다.

사용액도 발행액의 97.4%인 2조 2478억원에 이르러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탐나는전’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주자치도가 지급한 인센티브 예산도 1999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21년 425억원을 쏟아부었고 지난해에도 역대 발행액을 기록한 만큼 인센티브도 716억원을 최대치를 보였다. 그나마 이중 국비로 695억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이 줄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도 각종 정책 수당에 대한 탐나는전 지급 확대를 통해 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존 농민수당이나 아동건강체험 활동비, 단체여행 인센티브 지원 외에 탐나청년 출발페스티 3억원,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 지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억5000만원, 예술인 청자 준비금 3억6000만원도 탐나는전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설·추석 명절 등 소비 촉진이 필요한 시기에는 도비를 추가 부담해 적립률과 적립한도를 단계적으로 적용, 탐나는전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위영석기자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 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봉실
064)757-1416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 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祉(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 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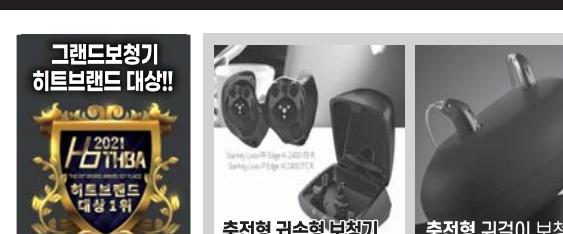
주소 | 제주시 진동로 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 064.742.6234

문의 |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2026년 병오년 고객 감사제’ 24시간 상담 / 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 기다려주세요!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인내

NAVER 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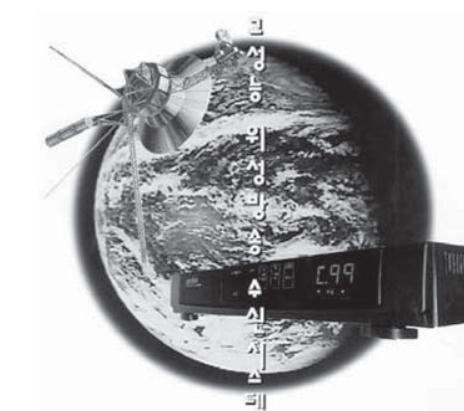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사랑로 225 층

제주시비서티마일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온 · 교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 751-0045